

청주 육거리 시장 방문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 목 차>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 해주었으면
 -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
 -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 복지와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 정부 믿지 않고 외교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의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겐 이득
 -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재래시장 성과보고회 말씀 전문>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기대를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정책 건의도 건의지만,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과 변화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정부가 재래시장 전체에 다 도움을 드리지도 못했고, 도움을 받은 시장이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몇몇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새롭게 먼저 시작해 크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뒤따라갑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앞질러 갑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배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것입니다. 일단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한번 배워 보자’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번 보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정책 중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손질해야겠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올해 정부가 6개 분야에서 정책고객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는데 재래시장은 처음엔 빠져 있었습니다. 시장이니까 고객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모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보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점검되고, 중간에 소홀해진 것도 다시 챙기게 되고, 조금 잘못됐던 것도 다시 바로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고를 지시해 놓고도 걱정을 했습니다. 원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이라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려워 마음이 불편했는데, 작은 성과나마 평가해 주시고 박수도 힘차게 많이 쳐 주셔서 마음이 놓이고 고맙습니다.

○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재래시장이 일부는 남아서 전통시장 내지 풍물시장으로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성공하겠지만 아무리 해도 일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일부는 언젠가 밀려나더라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조 조정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밀려나는 것보다 서서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라도 버티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젊은 사람들이 새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국가 전체로 봐선 산업 간 구조 조정입니다.

농업도 세계 시장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경쟁이 안 되는 곳은 점진적으로 자연적 연령에 의해 구조 조정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그런데 오늘 육거리 시장에서 IT 교육 버스를 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

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와서 교육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인마트가 들어오든 SSM(슈퍼 슈퍼마트)이 들어오든 우리는 우리대로 살길을 찾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을 보니 제가 전통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결론을 낼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정신 차리고 한 번 더 점검·분석해 보고 정책도 다시 다듬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오늘 중기청에서 ‘달라진 시장’이란 자료집을 냈는데, 정리가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정부에 대해 이젠 신뢰를 갖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항상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 정부 내부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은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까, 정부와 공직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심하던 끝에 자기가 하는 일을 전부 책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해주었으면

제가 대통령이지만 신문을 보고 있으면 그 다음 날 아침 정부를 해체시키고 싶은 감정이 들 정도입니다. TV를 보고 있어도 ‘저 공무원들 다 잘라 버려야지. 저런 공무원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느낌이 들만큼 그렇게 정부는 엉망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보고서를 읽어보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단편적인 정보로는 알 수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다듬어 책으로 묶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한테라도 제대로 이해되게 전달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기청의 책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도 관심과 신뢰를 갖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진실을 함께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재래시장 정책이 시작된 것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지금 성과가 나니까 온통 참여정부가 다 한 것처럼 기록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정부의 시범사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엔 엉성했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와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2004년 3월 5일 이와 비슷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탄핵 때문에 두 달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정책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말년에 했던 사업이 오늘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완전히 중단돼 있다가 2002년 5월 다시 입안돼 정부 절차를 거쳐 2003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제가 당선자 시절이

었는데 어떻게 국민의 정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법 만들고 통과시키려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그것 없이 바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참여정부에서도 잘한다고 내놓을 만한 명품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색이 나든 안 나든 마지막까지 이런 정책을 챙기려고 합니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참여정부가 잘 했다, 못 했다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양극화 심화입니다. 소득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과 제일 높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옛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중산층의 절대소득이 13%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이 누구 때문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98년 이래 금년까지 10년 동안 98년 이외에는 절대소득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절대소득이 후퇴한 해가 없습니다. 2003년에 정체를 있었고 다른 해엔 최하층 소득까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봉이 아주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버렸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잘 가는 사람이 앞에서 빨리 가버리니까 제 속도로 가고 있어도 앞뒤의 거리는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앞서 가는 사람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절대소득이 늘었다 하더라도 앞뒤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은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면 격차가 줄어들지만 실업자가 많아지면 격차는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나빠진 때가 98년입니다.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6.7% 됐을 때, 실업자는 최고 150만으로 늘었고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가계부채 위기가 왔을 때 신용불량자들이 384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격차가 또 벌어졌습니다. 절대 부도내면 안 됩니다.

○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장률이 낮아도 좋으니까 마약주사 놓는 일 일체 하지 않고, 기초체력 절대 상하게 하지 말고, 기초 기술 절대로 떨어지게 하지 말고 안정되게 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특별하게 큰 금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가 위협에 처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대농, 뉴코아, 한신공영, 진로, 기아 등 줄줄이 기업들이 쓰러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그 정도로 우리가 무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가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경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갑자기 심각하게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일자리 내용적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문제입니다.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비정규직의 내용적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비정규직이 여유가 생겨야 돈을 쓰고 그래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조금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고학력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물류

나 금융 등 고급 지식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자본시장통합법이 계류 중인데, 어떻게든 대학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금융부분도 아주 빠르게 개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성공할 것입니다. 물류 부분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사회적 일자리는 그 사회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굶고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거나 노인이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실 때 가족 대신 돌봐주는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적게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수많은 종류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이런 사회적 일자리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절반은 봉사정신이고 절반은 실비를 받는데, 선진사회일수록 그런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정부는 그런 일자리들을 굉장히 빠르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전부 얹혀 있습니다.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2002년까지 전국 가구의 소득통계는 없고 도시근로자 가구 통계만 있었습니다. 근로자가구 통계로만 보면 2004년까지 시장소득의 격차가 커졌다가 2005, 2006년에 현상유지되거나 오히려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전국 가구 평균을 내느라 농민과 영세 상인도 포함시켰더

니 도시근로자 가구만 비교할 때보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연금도 지급하고 그밖에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직간접적으로 복지 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으로 따지면 지금의 격차는 2003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2002년까지 정부의 재정활동에 의해 지니계수를 시정하는 효과가 3.4%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새로 통계를 내니까 5.5%로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1%~2% 시정효과가 높아진 것입니다.

복지지출은 참여정부가 제일 많이 했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성과도 제일 큼니다. 그러나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잘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웨덴은 재정활동을 통한 빈부격차 시정효과가 40%입니다. 그동안 정부 예산 중 경제 사업비가 복지 사업비보다 높았는데 2004년 역전됐습니다.

경제사업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줄이니까 BTL이라는 방법으로 민간인들한테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 막사나 학교를 짓게 해 그걸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90년 뒤에 계산해 보면 큰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정부는 각 부처에 총액 예산제도를 도입해 4.5% 정도 새로운 예산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 지출은 줄여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5%가 다 남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은 분명 높아집니다.

세금도 잘 걷힙니다. 세무조사를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만 징수해도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30% 증액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개개인의 종합소득세가 30%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자금 일부도 세금으로 환수시켰고,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세원을 노출시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세 조사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세금을 연간 몇 조씩 늘리고 있습니다.

○ 복지과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참여정부는 늘어난 세금을 복지와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을 올려줘야 합니다. 미국만 해도 재정 중에 56%가 복지지출입니다. 우리는 지금 28%입니다. 재정 규모가 일본과 미국보다 9%이상 적은데다 복지지출마저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우리나라 자영업자 절반이 직접세 면세점 아래에 있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 역시 약 49%가 면세점 이하에 있습니다. 절반이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상위소득자 20%가 직접세의 90%를 내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 더 냅니다.

그런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무슨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기사가 나옵니다. 인터넷엔 그 사람들의 댓글이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월급쟁이가 봉이냐, 다 짜먹어라.’

정부가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 뒤에야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제대로 혜택을 베푸는 사회가 돼야 가난한 사람들도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제대로 공부시켜 미래엔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돈이 우리 전체 GDP 대비 약 9% 수준인데, 미국·일본의 15~16%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이고 유럽과 비교하면 1/3 수준입니다.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최근 OECD가 한국경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엔, 한국은 복지 지출이 너무 적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부동산 가격 상한제를 앞으로 고쳐야 한다는 부분만 발췌해 보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문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은 제일 먼저 쓰고, 복지문제에 대한 지적은 한마디도 쓰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최대 신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호하고 대변하고자 하는 이익이 뭘니까? 주택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만 보도하고 거기가 오르면 다른 데 다 내려도 오르는 것이고, 거기가 내리면 다른 데 다 올라도 내리는 것으로 보도합니다.

○ 정부 믿지 않고 외교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상위 10개 이내의 대학 얘기만 씁니다. 어제 대

학 총장 230명 정도를 만나 회의를 했는데 정부의 대입제도 정책을 반대하는 대학은 10개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신문엔 200개가 넘는 대학 얘기는 빠지고 우리나라 전 대학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2004년 앞으로는 대입전형을 내신 중심으로 하기로 정부와 대학이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시생들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정부를 못 믿고 외국어고등학교를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입시생들이 내신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으니깐 그것을 고쳐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만 신문에 나옵니다.

○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전체적 한국을 진단할 때 교육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세계 대학 순위 2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별로 없고 기업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등교육은 세계 일류 수준이고 양과 질을 다 합하면 한국의 대학교육도 괜찮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엉터리라면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데리고 기업했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의 경쟁력입니다. 이미 대학이 시장에 노출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갈 것입니다.

○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격차는 빈부, 지역 간 외에도 계

층, 세대 간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뉴욕보다 더 활력 있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선진국 노인들은 옷도 잘 차려입고 여유와 품격 있는 모습으로 부인과 나란히 산책을 다니는데 반해, 우리 노인들은 파고다 공원이나 공짜 지하철을 타고 밀려다닙니다. 노인들의 모습에 품위와 여유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도 닥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언론은 관심과 배려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처음부터 불리해서 아예 경쟁에 끼어보지도 못했거나 경쟁하다가 실패한 사람, 그래서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자주 민생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한다고 비판합니다. 제가 제 말을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TV에는 이상하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다 덮어줬는데 요즘은 덮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이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엔 약 50건에 불과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선 10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사설은 아직 임기 5년도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280건입니다. 280건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민생현장 방문에 대한 보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절반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날 중점적으로 나눈 대화내용은 빠지고 제가 말실수 한 것만 나옵니다. 말실수가 아니라도, ‘재래시장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힘들어서 대통령한테 돌 던질 줄 알았는데 오늘 반갑

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돌 던질 줄 알았는데...’ 만 제목으로 나옵니다. 매사 그런 식이니 민생현장을 방문하면 뭐합니까?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통합의 해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또 사회적 자본이 부실하고 신뢰와 규범 등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우리 사회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다. 특히 언론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언론은 과거엔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모든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권력은 더 이상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언론은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뭘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언론이 ‘감시견’ 역할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인도견’ 역할까지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우리 한국 언론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공공성이 높다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는 최근 10년 총리재임을 마감하고 어느 언론연구소의 연설에서 언론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재임 중에 이 말을 못하고 마치고 난 뒤에야 이 말을 하는 비겁함에 대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물며 한국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한국의 언론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제가 기자실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언론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언론은 기자실 개혁을 두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열토당토 않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깊이 보고 구조적·본질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힘 약한 사람들은 항상 제대로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재래시장은 덩치도 크고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인들의 발언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이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래시장이 주제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전부 얽혀 있어 한 가지만 따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주변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집니다. 국민주권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영향력이 부자의 한 표와 가난한 사람의 한 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처음 민주주의를 할 때는 전 국민의 1/10분만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로 발전하기까지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60~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48년부터 지금까지 60년의 보통선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투표를 한다고 모두 한 표를 고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표의 가치가 공정해져야 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같아져야 합니다.

○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게 이득

약자일수록 그 사회가 민주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이득입니다.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다 공개돼 버리면 특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완벽한 정보의 대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성공하려면 규범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o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평화가 유지돼야 합니다. 불안한 사회는 손님도 안 오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호주머니부터 잠급니다. 제가 겁이 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돈도 우리가 많고 군사력도 우리가 훨씬 더 셉니다.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전쟁이 붙으면 북한은 일주일분의 기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남북관계를 멀리 내다보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밤중에 비상을 걸지 않았다고 혼이 났지만, 국민들에게 비상을 걸지 않은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업에나 종사하십시오. 국방은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우리나라 육해공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면 되는 것이고, 꼭 깨워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때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안 깨웠더니 안보불감증 걸렸다고 비난합니다.

o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서민들의 삶에 다 직결돼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월남, 중동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돈 벌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잘 살게 됩니다. 기업이 돌아가면 사장도 잘 살고 노동자도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런데도, 북한이 핵실험 했다고 개성공단, 금강산 문 안 닫아 버린다고 어떻게 저를 공격하는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결코 경제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o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요새 경제파탄, 국정파탄 얘기하면서 실패한 대통령이랍니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에도 개인적으로 부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정권 중에서 부도율은 가장 낮습니다. 2003년에 이미 절반 부도난 상태에서 나라를 인수해 부도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세히 생각하지도 않고 ‘실패’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감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인 건 맞지 않습니까? 가장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법치주의에 충실하고, 평화주의에 투철한, 친북 좌파정권 소리 들어가면서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앞으로 많은 기회를 열어가자는 대통령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충북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 ■

▲ 노대통령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은 전부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고맙다. 대통령이 별로 잘한 게 없어서 제가 초청하면 몇 십 명 오고 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아직 내가 대통령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통 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 활로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 정책에 대해 오늘 점검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그 중에 영세자영업, 영세자영업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이 가장 어려웠다.

전통 시장을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한 가지 있고 밀리더라도 천천히 밀려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은퇴하시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였다. 그게 하이닉스처럼 큰 덩치로 보이지 않고 하니

까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확인해 보고...제가 방문해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전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사람들도 와서 좀 보고 확산시키는, 벤치마킹 하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다.

그런 모범사례를 충북에서 하게 돼서 청주시 여러분께 축하도 드리고 싶고 그 모범사례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린다. 지역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인데 청주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성공모델 만들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때늦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이 쪽에 와서 기존의 여러 가지에서 구심력이 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뒤늦긴 하지만 축하드린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대기업이 들어와도 그냥 딸랑한 기업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고를 맺고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아주 커질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임기가 다 가기 때문에 혁신도시 구상 하에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기로 되어있는데 '진짜 오는 거 맞긴 맞는 건지' 그런 우려들도 있고 해서 균형발전 주제로 해서 그 점이 차질 없이 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 드리고 싶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여러 공공기관의 대표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확실히 온다' 이렇게 다짐도 받고 그렇게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밑천이 될 것인가, 와서 하기 에 따라 두 배 세 배 성과가 날 수도 있고 그저 이방인으로 썰렁하게 기관 하나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효과 있게 할지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희 부의장께서 선물 많이 주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선물 드려야 될 지 말씀도 듣고 오면서 '선물 좀 챙겨봐라'고 했더니 옛날에 택배로 다 보내서 들고 갈게 없다 그러더라고요.(웃음) 그래도 올라가서 뭐 택배로 보낼게 있는지. 전 점잖은 사람이라 손에 뭐 안 들고 다닙니다.(웃음) 필요하면 또 택배로 보내겠다.

대선이 있으면 신임 대통령에게 맡겨야 되는데, 지난 날 정책을 보다가 임대주택정책을 보는데,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국민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 가지고 지체 없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새 대통령이 해야 하지만 마무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날 경험으로 보면 당선돼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고, 후보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대통령 취임해봐야 안다.

제 생각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취임해서 일년 지나고 보니 새롭게 아는 것이 있고 이년 지나고 새로운 것이 있고 그렇게 자꾸 발견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일을 책임 있게 하려면 마지막 날까지 착실하게 해야 된다. 택배로 보낼 것이 있으면 마지막 날까지 처리하겠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유익한 대화, 즐거운 대화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 노대통령 마무리 발언

좋은 공연(영동군 난계국악단, 청주시립예술단) 잘 봤다. 세상에는 서양음악이 있고, 한국음악이 있고, 여타 나라의 민속음악이 있다고 할 만큼 우리 음악이 수준이 높고 세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선자 시절, 지역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지식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후 균형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혁신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자고 했다. 그 계획을 담을 그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175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흩뿌려 놓으면, 가는 사람도 문제고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가느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모이는 집적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혁신도시’를 기획한 것이다. 이것은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기초 지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지식과 산업, 학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전체로 시너지효과를 확산하는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내적 역량이다. 그것이 그 지역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방교육 중심대학, 지역발전 선도 대학을 만들어서 특성화해야 한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지금도 ‘수도권 규제 철폐’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걱정이다.

지역의 가치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로 발현되어야 한다. 거기에

맞게 정책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경쟁력이다. 보통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삶의 질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마지막 전략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인 것이다.

오늘 참석한, 총북으로 이전하게 될 12개의 공공기관은 당장 올해 직원 채용할 때 이 지역 대학생을 일정수 뽑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그래야 지역과 충돌하지 않고 어깨동무를 하고 나갈 수 있다. 기업생태계 차원에서 경쟁하는 시대이다. 가치를 분명하게 승인받아야 성공한다. 또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